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1주~9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 2025년 1~7월 주택 준공 3.9% 감소, 건설 경기 위축 지속 (8.21)
 -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5년 1~7월 전국 주택 준공 건수는 약 11만 3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
 - 같은 기간 신규 착공 건수는 약 13만 400호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 지속
 - 7월 기준 건설·조립 부문 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각각 0.6% 감소
 - 2024년 전체 주택 준공은 약 20만 400호, 2023년 대비 9.4% 감소하며 하락세 지속
 - 주택 공급 둔화와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는 고금리 및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 폴란드, 7월 기업 고용 감소·임금 상승 지속(8.21)
 -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
 -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임금은 7.6% 상승해 8,905즈워티(약 339만원) 기록
 - 2분기 전체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 임금 개선 가능성 시사
 - 한편, 가족노동사회정책부(MRPIPS)는 7월 실업률이 5.4%로 전월 (5.1%)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 고용시장 둔화 우려 제기
 - 현재 최저임금은 4,666즈워티(약 177만원)이며, 2026년 1월부터 3% 인상된 4,806즈워티로 조정 예정

○ 폴란드 7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4.8% 증가(8.25)

-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5년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 ‘가구, 가전, 가정용 전자제품’ 부문에서 1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
- 임금 상승과 구매력 회복이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도만스키 재무부 장관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강한 경제지표”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
- 2025년 상반기 비금융 기업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총비용은 2.4% 감소해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
- 2023년 GUS에서 실시한 기업 종합 통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총매출은 8.5조 즈워티로, 2022년 대비 3.8% 증가

○ 폴 부유층 급증, 4백만 즈워티 이상 자산 보유자 10만 명 돌파 (8.27)

- Rzeczpospolita*는 EY-Parthenon 분석 및 IMF 추정치를 인용해 폴란드 내 4백만 즈워티(약 15.2억원) 이상 자산가가 약 1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

* Rzeczpospolita : 폴란드의 대표적인 정치·경제 일간지로, 폴란드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일간지로서 여러 국제 랭킹 및 보도에서 인용되는 등 폴란드 내 오피니언 리더 신문으로 평가됨

- 지난 10년간 40만 즈워티 이상 자산 보유자는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약 4백만 명으로, 이들이 국내 전체 부의 약 62%를 보유 중
- 개인의 경제력 증대로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 폴란드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으나 1인당 GDP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 유지
- IMF 전망에 따르면, 폴란드 명목 GDP는 2024년 91백억 달러에서 2025년 98백억 달러로 성장해 세계 20대 경제국 중 하나로 진입, 스위스 경제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
- 2026년에는 GDP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Avtostrada, 비니차 지역 유망 석회석 채석장 인수(8.21)

- 우크라이나 최대 인프라 건설사 Avtostrada가 비니차주 즈메린구 Rivska 광구의 석회석·점토 채굴권에 대한 20년 특별허가권을 €1,285만(약 31만 달러)에 낙찰
- 해당 경매는 우크라이나 국가지질자원청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쟁 입찰사인 Monolit Podillya는 €1,278만을 제시
- Rivska 광구에는 석회석 매장량 21.9백만 톤(확정 10.7백만 톤, 추정 11.2백만 톤), 점토 매장량 2.34백만 톤(확정)이 매장
- Avtostrada는 이번 인수를 통해 지질조사부터 산업 채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 가능하며, 시멘트 원료 확보 및 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
- 현재 Avtostrada는 키이우 지하철역 신설, 포딜스키 대교 건설, 미콜라이우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 중

○ Ribas Hotels Group, 호텔 및 리조트 6곳 신규 개장 예정(8.20)

- 우크라이나 호텔 운영사 Ribas Hotels Group은 2026년까지 키이우, 비니차,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자카르파타 지역에 총 500실 이상 규모 호텔, 아파트형 리조트 및 별장형 숙소 80개동 신규 개장 예정
- 올해 말까지 자카르파타주 폴라나 마을의 WOL Green Polyana 및 키이우주 Petrikor 복합단지의 우선 개장이 예정되어 있음
- 현재 WOL.311 Yaremche, WOL Vinnytsia, AMA Family Resort, AGAT Resort & Spa 등 다수 프로젝트가 공사 중
- 업체 측은 리비우, 부코벨, 오데사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 및 객실 단가 상승세를 언급하며, 연간 숙박시설 수가 약 7%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
- Ribas Hotels는 현재 총 1,000실 이상을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역 확장 및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외식업, 방문객 감소에도 상반기 매출 5% 증가(8.27)

- 2025년 상반기 외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리비우가 +7%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 전체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반면, 초밥 전문점은 전년 수준 유지하였으며, 그 외 업종은 7~16% 감소세를 보임
- 평균 결제 금액은 ₩171(약 5,800원)로 전년 대비 17% 상승,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분석됨
- 업종별 평균 결제액 증가율은 바(₩476, +19%), 커피숍(₩108, +18%), 카페(₩307, +17%), 레스토랑(₩675, +17%), 피자가게(₩324, +16%), 베이커리(₩82, +14%), 초밥집(₩670, +12%)순
- 본 통계는 8,800개 외식업체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수요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이 매출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됨

○ 키이우, 2025년 상반기 신규 비즈니스 센터 개장 전무(8.28)

- 2025년 상반기 키이우 오피스 시장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센터 개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CBRE 우크라이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약 4.5만m² 규모의 오피스 공간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시장 환경이 악화됨
- 키이우 내 총 오피스 공급 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2.11백만m² 기록
- 평균 공실률은 21%로 연초 대비 1.1%포인트 하락, 중소기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고품질 오피스를 선호하는 추세
- 프리미엄 오피스 임대료는 m²당 월 \$19~\$25 수준에서 형성
- 하반기에는 약 7.3만m² 규모의 신규 비즈니스 센터 5곳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안 리스크, 자금 조달 문제, 임차인 사전 계약 저조 등으로 인해 완공 일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 우크라이나, 6개 신규 산업단지 동시 등록(8.28)

- 우크라이나 내각이 총 140헥타르 규모의 6개 신규 산업단지를 동시 등록, 약 5,1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산업단지는 체르카시, 키로보흐라드, 볼린, 테르노필, 오데사, 비니차

- 지역에 위치하며, 정부의 인프라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류블리네츠 단지(볼린주, 49.7ha)는 과일·채소 가공, 제과, 오일 등 식품산업 중심으로 2,500명 고용 목표, 약 15.5백만 달러 투자 유치 계획
 - 즈보리프 단지(테르노필주, 15.5ha)는 식음료 및 농산물 가공·물류 중심, 250명 고용, 약 5.5백만 달러 규모 투자 기대
 - 그 외 주요 단지로는 바이오센스(Biosens), 오데사 노바 파크, 스탠 인베스트(Stan-Invest), 인테그랄(Integral) 등이 포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에도 15개 산업단지에 총 12억 흐리브냐 (약 403억원)를 지원한 바 있음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나브로츠키 대통령, 풍력발전 규제 완화 법안 거부권 행사(8.21)

-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풍력발전 규제 완화와 전기요금 동결 연장을 함께 담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이는 8월 6일 취임 이후 첫 거부권 사례
-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풍력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기요금 동결만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조치는 9월 말까지 1MWh당 500즈워티 (약 19만원)로 유지되며, 대통령은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9월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
- 논란이 된 풍력 관련 조항에는 주택과 풍력 터빈 간 최소 거리 기준을 700m에서 500m로 축소하고, 2016년 도입된 '10H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10H 규칙(zasada 10H) : 2016년 폴란드 우파 정부(법과 정의당 PiS)에 의해 도입, 풍력 터빈의 높이 (H, 터빈 끝까지의 전체 높이)의 10배 거리 이내에는 주택 등 거주 건물 건설을 제한하며, 사실상 풍력발전소를 거의 건설할 수 없게 만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됨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주거지 인근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
- 투스크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는 전기요금 인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

○ Orlen, Synthos와 SMR 공동 건설 협약 여름 내 체결 예정(8.21)

- Orlen은 Synthos와의 SMR 공동 건설 협약이 여름 종료 전 체결 될 것으로 전망, 투스크 총리의 일정 유지 입장도 재확인
- 협상 지연은 기술 접근권 및 사용료, 재정 조건 조율 때문이며, 현재 협의 지속 중
-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하며, 2035년까지 최소 2기 SMR 가동하는 기존 목표 유지, 일정 단축 가능성도 언급
- 우크라 Naftogaz와의 가스 협력 확대도 추진 중으로, 현재 월 1억m³ 규모 가스 공급하고 있으며, Naftogaz CEO가 방폴하여 추가 협력 방안 논의 예정
- Orlen의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은 59.32억 즈워티(약 2.25조원), 전년 대비 31.08억 즈워티 증가, 매출 607억, 운영현금흐름 105억 즈워티
- 상반기 투자액은 140억 즈워티, 연간 목표(350억 즈워티)의 40%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정유, 원자력, 재생에너지, 석유·가스, 화학 등에 전략적 투자 확대 중

○ ORLEN, 트셉부슈(Trzebusz) 지역에서 천연가스 매장지 확보 (8.24)

- ORLEN, 북서부 트셉부슈(Trzebusz) 지역에서 7억m³ 규모 천연가스 매장지 확보, 역내 회수 가능 자원 총량 23억m³로 증가
- 신규 가스정 연간 생산량 최대 3천만m³ 전망, 인접 고르지스와프 및 다르고스와프 지역과 연계해 자원 최적 활용 기대
- ORLEN은 2030년까지 연간 국내 가스 생산량 40억m³ 달성 목표를 밝히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수요 대응 위한 핵심 투자로 강조
- 지진 탐사는 Geofizyka Toruń, 시추 작업은 Exalo Drilling이 수행
- ORLEN, 트셉부슈 지역 성공에 힘입어 추가 시추 계획 중이며,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인근 자원 최대 50억m³까지 확대 가능성
- 2024년 폴란드 전체 국내 가스 생산량은 약 33억m³

○ 독일 공군 부대, 2026년부터 포즈난(Poznań) 주둔 예정(8.21)

- 노박 폴란드 공군감찰총장은 독일 공군이 2026년부터 포즈난에 부대를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
- 해당 발표는 미엥스크 마조비에츠키(Mińsk Mazowiecki)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열린 폴란드-독일 공군 간 협의 중 이루어짐
- 현재 폴란드는 NSATU(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조정기구) 임무의 일환으로 독일군을 포함한 다국적 공군 전력을 수용 중
- 현재 주둔 중인 독일 공군 전력은 ▲제슈프(Rzeszów)의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 부대 ▲미엥스크 마조비에츠키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운용 부대로 구성
- 지난 8월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EF-2000 타이푼 5대가 미엥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에 배치, NATO 집단방위 강화 목적
- 노박 총장은 “폴란드 공군은 국가 영공 방어에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동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네덜란드 패트리엇 미사일, 12월 폴란드 배치 예정(8.21)

- 코시냐크-카미시 국방장관, “네덜란드군 300명, 패트리엇 미사일 2기, 드론 대응 시스템이 12월 폴란드 주둔 예정” 발표
- 배치는 우크라이나 인접 야시오나(Rzeszów-Jasionka) 공항 인근에 주둔 중인 독일군의 미사일 포대를 대체
- 네덜란드는 자국 보유 3기의 패트리엇 중 2기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F-35 전투기도 폴란드에 배치 예정
- 현재 폴 내에는 노르웨이 F-35, 독일 유로파이터, 스웨덴 그리펜, 영국 전투기 등 다국적 전투기 운용 중
- 장관은 “다층 방공망을 구축 중”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 신속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 그룹(Polska Grupa Zbrojeniowa, PGZ) 소속 타르누프 군수공장(Tarnów Mechanical Works)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 ‘Pilica+’ 생산 가속화 약속

- 해당 공장은 원격 무기 시스템, 박격포, 유탄발사기, 정밀 저격총 등 군용 장비 생산 담당

○ 나브로츠키 대통령, 독일에 2차대전 배상금 요구(9.1)

-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개전 86주년 추모행사에서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독일에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공식 요구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독일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배상 문제 해결이 전제”라며, 정부에 입장 강화를 촉구
- 행사에는 투스크 총리, 코시냐크-카미시 국방장관, 호워브냐 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 참석
-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결코 다시 약해지거나 고립되어선 안된다”고 강조
- 코시냐크-카미시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폴란드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발언
- 한편,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는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나 법적으로 가망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러시아에 대한 배상 요구가 없는 점을 지적

○ 나브로츠키 대통령, 우크라 피란민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 및 대체 법안 발의(8.26)

-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8월 25일, 우크라이나 피란민 복지 혜택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 거부 및 거부권 행사, 보다 엄격한 이민·시민권 법안 발의
- 대통령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폴 내 취업자 중심의 지원 체계 재편 및 폴란드 국민과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
- 또한 “타국 국민에 대한 특혜적 처우는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 하되, 9월 말까지 대체 법안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스타링크 군사 지원은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

- 기존 개정안에는 우크라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로 군 통신 체계 차질 우려가 제기
- 가프코프스키 디지털부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는 곧 우크라이나 인터넷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

○ CPK 수용보상제도 개선 및 주택거래정보 포털 신설 추진(8.26)

- 정부는 8월 26일 각료회의에서 CPK 사업 관련 수용 보상 절차 개선 법안 및 주택시장 정보공개를 위한 ‘DOM 포털’ 신설 법안 논의
- CPK 관련 개정안은 감정가 확정 후 30일 내 최대 85%까지 보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주 유예기간은 최대 120일로 명시
- 주지사가 수용 결정을 즉시 집행 가능하며, CPK 운영사가 실소유권 이전 전에도 인허가 절차 착수 가능
- 자발적 양도 참여자(Program Dobrowolnych Nabyć, PDN)에게는 기존 건물가 +40%, 토지 +20% 보너스 및 대체 가치 기준 보상, 이주·법률 비용 전액 지원 등 제공
- 신공항은 2026년 착공, 2031년 인증, 2032년 개항 예정이며, 총 투자액 13.1백억 즈워티(약 50.1조원)
-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전 정부가 수립한 CPK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현 정부안 수용 여부는 미지수
- ‘DOM 포털’ 법안은 주택 거래가격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공개, 일반 국민의 시장 접근성과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 이는 앞서 시행된 분양가 공개 의무화 조치에 이은 시장 투명성 제고 조치로 평가됨

○ 폴란드, 위성기반 기업 모니터링에 투자 확대(8.25)

- 폴란드 국책개발은행(BGK) 산하 벤처펀드 ‘Vinci’는 폴란드-핀란드 합작 SAR 위성* 운영사 ICEYE에 40백만 즈워티(약 152억원) 투자 발표

*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인공위성으로 레이더 신호를 이용해 지표면을 촬영하며, 일반 사진과 달리 물체의 재질, 표면의 굴곡, 전자파 반사 특성 등에

따라 흑백이나 질감으로 표현됨. 구름이나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고, 국방, 재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ICEYE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R 마이크로위성 군 운영, 2018년 이후 54기 발사, 90분 간격으로 전 지구 실시간 감시 가능
- 현재 미국, 브라질,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정부기관에 방위 및 재난 대응용 이미지를 제공하며, 2025년 폴란드·네덜란드·포르투갈과 위성 공급 계약 체결, 핀란드도 참여 예정
- ICEYE는 바르샤바에 위성운영센터 및 R&D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대 추진 중, 폴란드 국방부는 최근 레이더 위성 3기 계약 체결
- BGK는 2025~2030 전략 하에 농업·위기대응·방위 등 민간 및 국방 분야에 모두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할 예정

○ 고속철도 'Y' 노선, 시에라츠 - 칼리시 - 포즈난 구간 설계 본격 착수 (8.25)

- CPK는 고속철도 노선 85번(시에라츠 - 칼리시 - 플레세프 - 포즈난)의 기획 및 공간구상안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청 및 건설설계 작업 착수
- 해당 구간은 총 146km, 여객열차 설계 속도 시속 350km로, 완공 시 바르샤바 - 포즈난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38분으로 단축될 예정
- 건설설계는 2026년 3분기까지 완료, 이후 2026년 4분기 건축허가 신청, 2028년 1분기 착공, 2035년 말 완공 목표
- 칼리시 우회철도를 포함해 시에라츠플레세프(74km), 플레세프포즈난(72km)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
- 본 사업은 EU TEN-T(유럽 핵심교통망)의 일부로, 2024년 Connecting Europe Facility*로부터 162백만 즈워티(약 617억원)을 지원받아 설계 문서 개발 중

* Connecting Europe Facility :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으로, 교통·에너지·디지털 분야의 유럽 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민군 이중용도 교통, 친환경 인프라, 초국경 연결 사업 등이 중심이 됨

- 해당 노선은 바르샤바 - 신공항(CPK) - 우치 - 포즈난 - 브로츠와프를

연결하는 480km 규모 'Y형' 고속철도망의 핵심축으로, 북해~발트해 간선 철도 연결을 위한 EU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

○ CPK, 공항 건설 총괄 감리(GCE) 용역 입찰 공고(8.27)

- CPK는 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총괄 감리(General Contract Engineer, GCE)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 공개 입찰을 공고
- 과업 범위는 CPK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항 건설 전반에 대한 건설 감리 및 감독 서비스 제공
- 입찰 방식 : 제한 없는 일반 공개 입찰 (Unlimited Tender)
- 계약 유형 : 용역(Service), 계약 통화: PLN(폴란드 즈워티)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5년 10월 20일 14:00(현지시간)

○ CPK, 공사단계 임시 전력공급 및 MV/LV 계통 간 연계 및 보호 조치 공사 입찰 공고(7.11)

- CPK는 공항 건설단계 임시 전력공급 설치 및 MV/LV 계통 연계 및 보호 설비 구축을 통한 임시 전력공급 안정화 공사 입찰을 공고
- 과업 범위는 건설현장 전력 수급을 위한 임시 전력선 구축과 MV/LV 전력망 간 충돌 요소 해소를 포함
- 입찰 방식 : 제한 없는 일반 공개 입찰 (Unlimited Tender)
- 계약 유형 : 공사(Construction Works)
- 계약 공고일 : 2025년 7월 11일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5년 9월 19일 10:00(현지시간)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트란스카르파티아, 스웨덴·일본과 투자 협력 프로젝트 준비 중 (8.22)

-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주는 스웨덴 국영 투자기관 Swedfund와 회의를 진행, 민간 부문 투자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방안을 협의
- 스웨덴 측은 농업, 에너지, IT, 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존 지원 사례

공유, 향후 지열 에너지, 보건의료, 배수 개선 분야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검토 의사를 표명

- 트란스카르파티아주는 세부 제안 목록을 Swedfund에 전달할 예정이며, Swedfund는 일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재정 및 기술적 지원 제공할 계획
- 한편, 일본 기업 Daiwatech과의 회의에서는 내부 실험민(IDP)을 위한 모듈러 주택 건설,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됨
- 모듈러 주택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 중인 키이우 지역 사례를 토대로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 적용을 검토 중
- 본 사업은 일본 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B) 등 공동 투자 가능성도 함께 논의됨

○ EU, 우크라이나에 40억 유로 추가 지원,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8.22)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8.24)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4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재정지원을 집행했다고 발표
- 이번 지원은 EU가 우크라이나의 재건뿐 아니라 민주적·주권 국가로서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우크라이나가 강할수록 유럽도 강해진다"고 언급
- 해당 금액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Instrument for Ukraine)을 통한 32억 유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이자 수익 기반 지원금 10억 유로가 포함
-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은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 규모로 집행 예정이며, 이 중 ▲170억 유로는 무상지원 ▲33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 형태
- 이번 지원은 해당 기금의 4차분 집행, 8월 초 EU 회원국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한편, 폴란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비중 4.91%로 1위를 기록, 유럽 내 최대 기여국으로 평가받음

○ 러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국은 외교 원하지만, EU는 전쟁 고집” (8.25)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NATO가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해 전쟁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
- 라브로프는 8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열린 美-러 정상회담과 그 후 워싱턴에서 진행된 젤렌스키 및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EU가 평화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를 위해 같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 존중이 존재한다”고 발언
-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젤렌스키 및 유럽 지도자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 일부 유럽국들은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병 가능성도 언급, 이에 대해 러시아는 명백한 레드라인이라고 경고

○ 美, 평화협상 일환으로 러시아에 에너지 협력 제안(8.27)

-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참여 제안
- 주요 협력안에는 ▲엑손모빌의 ‘사할린-1’ 프로젝트 복귀 ▲러시아의 미국산 LNG 장비 구매(북극 LNG 2 포함) ▲미국의 러시아산 원자력 쇄빙선 구매 가능성 등이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진전이 없을 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러시아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인도에 대한 관세 경고 병행
- 유럽향 러시아산 가스 공급 재개 방안도 검토됐으나, EU의 강경 입장으로 진전 없음

○ 우크라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 통해 산업 전력 공급 확대(8.27)

- 우크라이나 볼린주 코파치우카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신규 건설,

인근 로지셰 소재 목재 가공업체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Rent Wind Energy사가 주관하며, 최대 6.5MW급 풍력 터빈 2기 설치와 함께 약 4.5km 규모의 서비스 도로 및 기존 송전망 연결이 포함됨
- 총 부지 면적은 약 0.7헥타르로, 발전소는 특정 산업 수요 대응형 전원 공급 모델로 추진됨
- 한편, 독일계 재생 에너지 기업 Notus Energy는 키이우주 마카리우 지역에 약 400MW 규모의 대형 풍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총 60기 내외의 터빈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 해당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됨

○ 우크라이나 도브라 리툼 광산 개발 50년 협약 발표(8.29)

-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브라(Dobra) 리툼 광산 개발을 위한 50년 기간의 생산 분배 계약(PSA) 경쟁 공고 및 세부 내용을 발표
- 투자 규모는 최소 179백만 달러(약 24.8백억원)로, 지질 탐사부터 채굴 및 가공 시작까지 포함
- 경쟁 참여자는 우크라이나 및 해외 기업, 법인 연합, 민간 참여자 등이며, 재정·기술 역량과 광물 추출 및 가공 경험 보유 필수
- 무력 공격을 감행한 국가, 제재 대상국, 기존 채굴 의무 불이행 업체는 참여 불가
- 계약 체결자는 환경 기준 준수, 우크라이나 제품과 인력 우선 사용, 지역사회 개발 투자 의무 부여
- 이번 경쟁은 우크라이나의 고체 광물 부문 첫 시범 사업으로, 전략 원자재 시장 개방과 글로벌 공급망 통합 신호탄 역할 수행

○ 우크라 드론, 러 에너지 타격과 헝가리 겨냥 '정치적 압박' 병행 (8.28)

-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10곳 이상을 타격, 정유 생산량 약 10% 감소 및 일시 폐쇄 유도
- 브란스크 지역 우네차(Unecha) 분배 허브 등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공격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 수입 차질 발생

- 공급 차단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는 EU에 공식 항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비판 및 전력·디젤 수출 제한 카드도 시사
-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은 단순한 에너지 타격을 넘어,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반(反)우크라이나 노선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 전략
- 드론 부대 지휘관 코드네임 'Magyar(헝가리인)'은 상징적 선택, 헝가리 국내 여론과 지도부에 간접 메시지 전달
-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지속 저지하며, 반 우크라이나 정서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선거 전략으로 활용
- 우크라이나는 그간 헝가리 소수민족 권리 보장을 위한 유화책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압박 중심의 대응으로 선회
-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 채널 활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르반에게 직접 통화한 사례가 있음



○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결 준비 안 돼” 입장(9.1)

- 美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발표
- 레빗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 스스로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The Atlanti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유럽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
-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푸틴 간 직접 회담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 현재 양국 정상회담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 외교 일정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3자 정상회담 개최 의지는 유지

○ 푸틴 대통령, SCO에서 러-우 전쟁 원인으로 NATO 지목(9.2)

- 푸틴 대통령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NATO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것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 기구로,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되며, 주요 목적은 안보 협력, 경제 협력, 반테러, 마약 단속 등 공동 문제 해결

-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우크라이나 나토 통합 시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재차 강조
- 트럼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평화 협정이 우크라이나 평화의 길을 열었으며, 중국, 인도 등 전략적 파트너들의 위기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
- 푸틴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 예정

○ 슬로바키아 총리,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반대 입장 재확인 (9.2)

- 슬로바키아 피코 총리는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EU 가입은 각국의 자율로 인정하되, NATO 가입은 슬로바키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 푸틴은 회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EU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NATO 가입은 러시아 안보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라고 언급

- 2014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이후, 자국의 이해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러시아는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
- 푸틴은 유럽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보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유럽 공격 계획설은 허구이자 도발적인 정치 수사라고 비판
- 서방 정치인들이 러시아를 위협 주체로서 간주하고 공포를 조성하며, 이는 러시아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다고 주장
- 피코 총리는 EU 및 NATO의 대러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슬로바키아-러시아 간 양자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

○ 푸틴, 시진핑-김정은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9.3)

-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 김정은 위원장 및 시진핑 주석과 함께 주요 인물로 등장
- 러-우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지지를 확인받는 계기로 활용하며,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국제적 고립이 아님을 시사
-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 회담, “북한은 러시아에 형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며, 실질적 군사 지원 지속에 감사 표시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불공정한 압박에 굴하지 않으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우회적으로 비판
- 행사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 군사 퍼레이드와 실전 공세를 연계하며 대외 압박 수위 상승
- 이번 퍼레이드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로, 극초음속 미사일, ICBM, 스텔스기 등 중국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에 축하를 전한다”며 풍자적 어조로 이번 회동을 견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세 정상 회동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
- 크렘린은 이에 대해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해명했으나, 국제적 긴장감은 고조된 상태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사업 개요 >

- (발주처) 해외건설협회, KIND, 태웅로직스
- (용역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지평
- (용역비) 730백만원
- (용역기간) 2025.2.~2025.9(210일)
- (추진현황) '25.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25. 3월 현지 착수보고
'25. 6월 중간보고회 개최
'25.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사업주간 거래조건 협의, 계약 연장 검토 중(~10월 말)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 (주요동향) EPC 관련 보증 회수(107백만유로)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베올리아, KIND, 남부발전
- (사 업 비) USD 480백만
- (사업내용) 폐기물 연20만톤 처리, 전기 18.6MWe 및 열 57 MWt생산
- (추진현황) '25.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25.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25. 5월 Non-binding Offer 제출 완료(남부발전)
'25. 10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26.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

○ (주요동향)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플랫폼) 2027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 •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
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24.12월)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7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5.10월)
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	•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24년 외교부 ODA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